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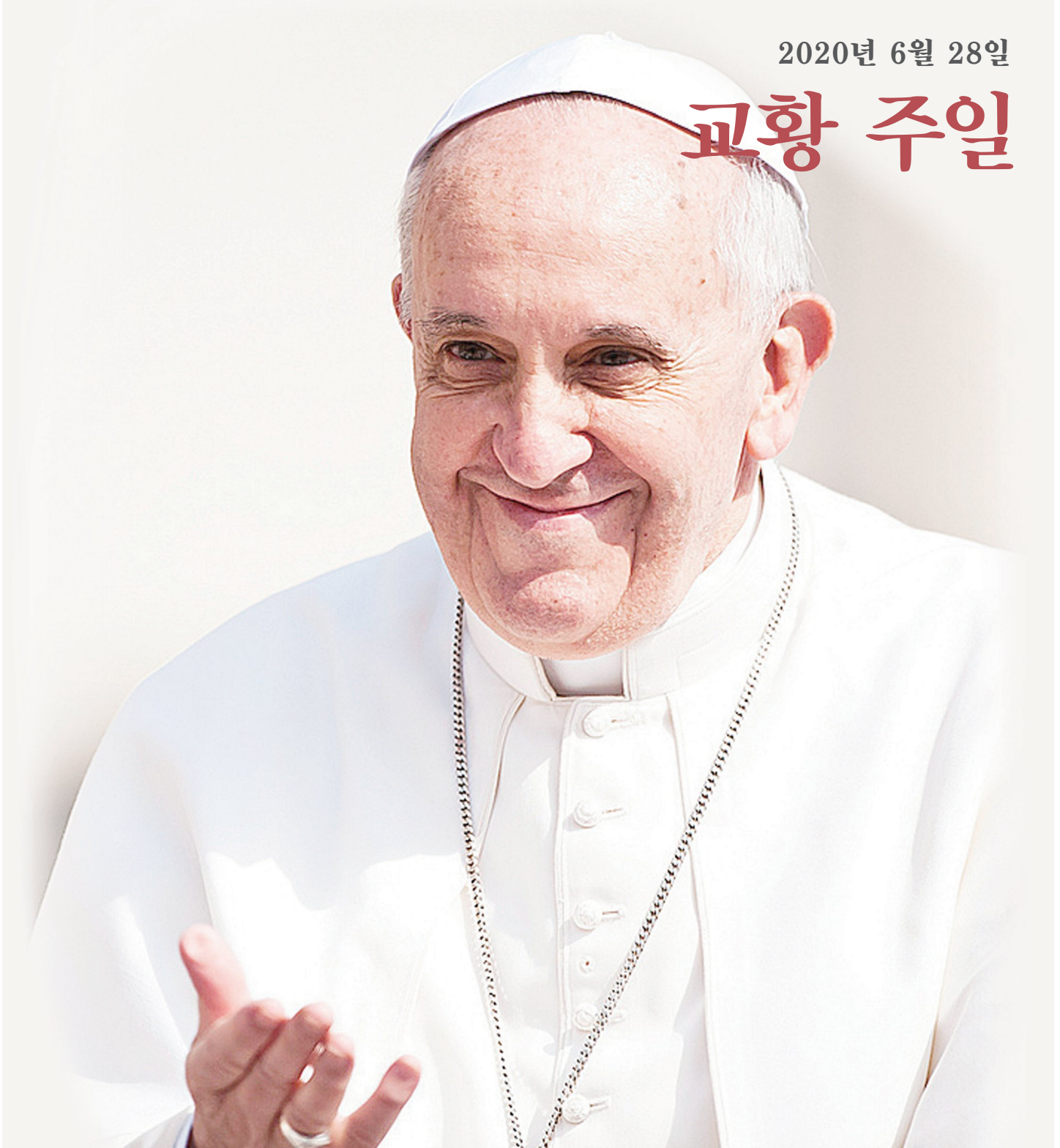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2020년 6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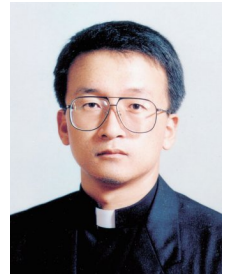
교황 주일



오늘은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황님의 사목 활동을 돕고자 특별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마음만으로는?

코로나19 덕분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졌습니다.
 주일미사 빠져도 이제는 그렇게 죄책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성당 활동과 봉사도 거의 연락이 없어서 부담감도 없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신부 노릇도 편해졌습니다. 미사만 드리면 됩니다.
 고령화되어서 존폐위기에 내몰린 레지오 걱정은 잠시 접어 둡니다.
 주일날 음료 봉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사 때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 한 번 병자 영성체도 나가지 않아도 되고, 단체 모임과 회식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하는 말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신앙은 마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십자가 지는 것도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목숨을 잃는 것도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받아들임도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받을 상이 마음만 받는 상이 아닙니다.
 시원한 물 한잔 없는 마음만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마음만 신경 쓰는 신앙으로 나아갈까 걱정되는 때입니다.



남영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 | 상평동본당 주임



제 1 독 서 2열왕 4,8-11,14-16L
 화 답 송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2 독 서 로마 6,3-4,8-11
 복 음 마태 10,37-42

주일 진레



교황 주일 베드로 성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오랜 관습

복음 선포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은 그리스도교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사도 4,34; 11,29 참조).

8세기 말, 앵글로색슨들은 로마의 주교와 너무나 친밀한 연대를 느꼈기에 교황 성하께 매년 정기적으로 헌금을 바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성금(Denarius Sancti Petri)의 기원이 되었고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 성금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나 이 대축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출처 : CBCK

니는 무슨 뻥 있노?

고광주 에스더 소설가/ 가톨릭 문인회

일이 힘들고 절망에 빠져서 하느님을 더욱더 다급히 외칠 때면 영일이가 생각한다. 대학에서 만난 첫 남자사람 친구이다. 키는 180cm가 넘어 멀대같이 크고, 뽀뽀 말라 멀리서 보면 휘적휘적 걸어오는 모습이 흡사 길거리에 나부끼는 바람 인형 같았다. 막내여서 그런지 항상 어리광을 부리고, 변덕이 심했으며 빠지기도 잘하는 친구라 항상 지켜봐 줘야 했다. 그때 나는 적당히 오만하고 적당히 겸손해지려 애쓰는 그런 치기 어린 대학생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내가 아주 당당해 보였나 보다. 어느 봄밤에 우리는 학교 옥상에서 바람을 맞고 있었다. 세상은 고요하고 별은 많았으며 누군가가 지켜주는 안전함에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뜬금없이 고요를 깨는 그의 한마디! “넌 어째서 그렇게 당당하냐?” 당황스러웠다. 난 당당하지 않고 수줍음도 많으며 못생겼고 키도 작고……. 이것저것 단점을 읊어대기 시작했다. 횡설수설하며 허둥대는 나를 빤히 보더니 “그래도 넌 당당해. 당당해 보여. 니는 무슨 뻥 있노?” 낮은 목소리로 되묻는 그를 보며 마음이 가라앉았다. 몇 분이나 흘렀을까. 내 입에선 “하느님 덕분이지”라는 말이 나왔다. 의외라는 듯 쳐다보는 그에게 내 뻥은 하느님이다, 하느님께서 내 뒤에 계시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겠냐며 큰소리 평평 쳤다.

캄캄한 밤을 가르던 소리는 믿음을 의심받는 나 자신에게 하는 외침이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그의 반응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가 학생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 전환해 열렬히 활동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만 있었다. 몇 해 후에 그의 심장에 암이 생겨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심장에 암이 생겼단다. 그 소심한 친구가, 그 여린 친구가 이 험한 세상의 불의와 맞서고자 혼자서 용을 썼을 테니 병이 안 생겼을 리가 없다. 하필이면 심장이라니, 작은 심장에 그의 고민이 다 응어리졌었나 보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자신의 심장에 돌을 던져대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하느님 뻥을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내 무심함이 원망스럽다. 어마어마한 하느님 뻥에 기대면 그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느님께 의탁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야 했는데. 그가 목에 핏대를 올리며 부르던 ‘임을 향한 행진곡’이 귀에 맴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친구는 남김없이 모든 것을 소진하고, 못내 이룬 그의 한이 심장을 돌로 만들어버린 후 세상에서 사라졌다. 좀 더 일찍 하느님 뻥을 알려주지 못한 나를 자책해 보는 밤이다. 하느님 곁에서 영일이가 깨진 마음을 붙이고 편히 쉬기를 바랄 뿐이다.

사람이 나타났다!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못 나는 오리, 못난 인간

나는 꿈을 꾸었죠. 달님이 말을 했죠. 어서 위로 올라와 나와 함께 놀자고.
늦은 밤, 잠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오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죠.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깊은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이제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갈 거야. 난 날아올라. (체리 필터, 오리 날다)

오리는 날 수 없다고 합니다. 엄마 오리도 말합니다. 오리는 날 수 없다,
그런데 달님이, 오리더러 날아올라, 자신과 함께 놀자고 합니다.
엄마 앞에서 날갯짓을 했다가 괜히 혼만 납니다. 그러나 오리는, 날갯짓을, 합니다.



저마다 이스라엘의 부족들을 대표하는 자들, 열두 명이로구나. 악마, 천사, 요정, 난쟁이 – 하느님의 잘난(잘난 척하는) 자식들과 못난(못난 줄 아는) 자식들, 골고루 모였구나.

안녕, 이 노랑이 구두쇠, 악독한 놈, 돈밖에 모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너, 겁도 없이 수다만 늘어놓는 욕심꾸러기. 그리고 너, 신앙심이 깊다는 악골아, 너는 겁이 나니까 살인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간음도 못하더구나. 네 성품이란 모두 두려움의 부산물이야. 그리고 너, 매를 맞아야 길이 드는 단순한 당나귀 같은 놈아, 너는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춥거나, 채찍을 맞아도 그냥 일만 하지. 죽어라고 일만 하고, 자존심은 다 갖다 버리고, 술의 밑바닥이나 핏아 먹는 놈이라고. 네 성품이란 모두 가난의 부산물이야. 그리고 너, 간사한 여우 같은 놈아, 너는 사자의 굴 밖에, 야훼의 집 밖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려 얄아. 그리고 너, 순진한 양 같은 놈아, 너는 매에 거리고 울며 너를 잡아먹으려는 하느님을 따라다니지. 그리고 너, 레위의 자손아, 돌팔이 같은 녀석, 너는 하느님을 무더기로 혈값에 팔아 넘기는 놈이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이라는 술을 팔아 그들이 취해 지갑과 마음을 네 앞에 모두 털어놓게 만드니까, 넌 악당 중에서도 악당이야! 그리고 너, 이 악질적이고, 고집불통이고, 광신적인 수도자야, 너는 네 모습을 본떠 악질적이고, 고집불통이고, 광신적인 하느님을 만들어 내지. 그러고는 신이 너를 닮았기 때문에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너, 불멸의 영혼으로 돈 장사를 하는 놈아, 너는 문간에 앉아 머리를 자루 속에 처박고는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을 하고 하느님께 돈을 꾸어 주었다고 생각하는 놈이야. 너는 장부예다 언제 언제 누구 누구에게 얼마 얼마를 어느 어느 시간에 주어 자선을 베풀었다고 기록하더구나. 너는 하느님 앞에서 펼쳐 보이고, 청구서를 제출한 다음에 불멸의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려는 생각에서 그 장부를 네 관 속에 넣어 달라고 당부하겠구나. 그리고 너, 터무니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주님의 계명은 모조리 깔고 뭉개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통하고, 그런 다음에는 울음을 터뜨리고, 가슴을 치고, 류트를 꺼내 들고는 네 죄를 노래하는 녀석이야. 교활하고 못된 놈 같으니라고. 너는 노래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하느님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노래하는 자들은 용서하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너, 뽀족한 소몰이 막대기로 우리 궁둥이를 찔러 몰아대는 토마, 그리고 나 – 무책임하고 미치광이 바보인 나는 머리가 돌아 메시아를 찾는답시고 마누라와 아이들을 버렸지! 악마, 천사, 요정, 난쟁이 – 우리는 모두 모였고, 우리 모두 위대한 사명을 위해 필요한 인간들이야! 애들아, 가서 “그 사람”을 찾아라! (니코스 카잔차키스, 최후의 유혹, 1장)

누구의 모습일까요? 길지만 잘 살펴보세요. 이 중 한 명은 분명 나를 닮았습니다. 여기 이 인간 군상들은 우리 누구나의 모습, 당연하고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짝 비틀어 바라보니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리는 날 수 없다.”와 “사람은 잘날 수 없다.”는 같은 말입니다. 잘난 척하거나 못난 줄 아는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우리 삶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잘난 한 분이신 “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못난, 그러나 날갯짓 하는 인간

태초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노예들의 세상 아주 깊은 곳에서, 한 사람이, 마치 날개라도 되는 듯, 쇠고랑을 찬 두 손을 격렬하게, 빨리 흔들어 대었고, 그러자 또 한 사람, 그러고는 또 한 사람, 그리고 결국엔 모든 백성이 어울렸습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은 강렬해졌고, 날갯짓은 격해졌고, 해방자가 곧 옵니다!

만일 단 한순간이라도 염원이 깨진다면 날개는 다시금 쇠사슬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횃불을 밤낮으로 타오르게 하시오. 싸우시오! 날개를 키우시오! (최후의 유혹, 8장)

우리는 ‘못난’의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쇄는 본디, ‘잘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날개입니다. 그 ‘잘난’ 날개가, ‘못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을 벗기려면, 그것이 ‘못난’으로, ‘족쇄’로 보여도, ‘잘난’인 양, ‘날개’인 양,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가요? 〈거짓〉이란 무엇이고요? 인간에게 날개를 주는 모든 것, 위대한 영혼을 만들어 내어 사람의 키만큼 인간이 땅 위로 솟아오르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이 진실이에요. 인간의 날개를 잘라 버리는 것, 그것이 거짓이에요. (최후의 유혹, 32장)

수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를 자신들 손아귀 안에 잡아두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못났어. 너는 날지 못해. 너는 별것 아니야. 너는 뭘 해도 소용없어. 네가 하는 게 죄밖에 더 되겠어? 그저 머리 조아리고 복종이나 해. 별별 떨면서 눈치나 봐. 네 주제를 알아라!!!

모든 거짓 속삭임, 낙원에서 혀를 날름거리던 고놈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조인간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이제는 날개를 퍼주는 진실에 귀를 여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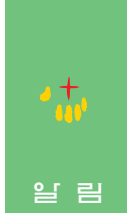
사람이 나타났대! 진짜 사람이다!

자유의 천사, 그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이 천사는 인류의 투쟁과, 집념과, 인내심의 화신입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그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최후의 유혹, 8장)

나에게는 날개가 없다고요? 흙수저 뿐이라고요? 세상 벽이 너무 높고 단단해 어찌할 수 없다고요? 그 흙수저를 가지고 날갯짓을 하세요. 찬란한 빛날개로 변모합니다.

“자, 이 사람이오.”[Ecce Homo. Behold the man! 보시오, “사람”이오.] (요한 19,5)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따라, 퍼덕거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퍼덕거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제를 압시다! 사람다워야 합니다.



기억할 선종 사제
제찬석(요한) 신부
2012년 6월 30일

교구/본당

청년 신앙강좌

일사: 6월 28일(주일) 13:00~15:3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강사: 이정림 신부(교구 청소년국장)
주제: 계시-인간에게 건네시는 하느님의 고백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톨릭플러스친구 '청년부'
※ 신청 후에만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접수 불가)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일사: 7월 18일(토) 13:00~19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통독범위: 티모테오1·2서, 티토서, 필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1·2서
대상: 성경에 관심 있는 청년,
선착순 20명 마감(전원 1인실)
참가비: 1인 6만 원
신청: 7월 12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사제·부제품 대상자, 신학교 자원자 대상자

신체검사 및 자원자 파정

일사: 7월 4일(토)~5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아) 010·4490·6996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곡 연주회를 위한 교구합창단원 모집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연습: (화) 19:30~21:30
문의: 단장 010·3868·9136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전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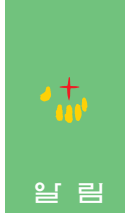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안내

관상적 기도와 사도직에 관심있으신 분
대상: 만 55세 이하의 남녀 신자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GCA 골프피팅 스튜디오 클럽/스윙/퍼팅 분석·맞춤 클럽 제작·가성클럽 피팅 클럽 수리·그립/샤프트/헤드/골프화 스파이크 교환 마산회원구 봉암로9 온골프존빌딩 (신세계백화점 앞 삼각지공원 건너편) https://blog.naver.com/golfgca ☎ 055.282.1872 (18홀 72타) 김종환 안토니오 창원대학교 체육학 박사수료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제주생지순례 3박4일 28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타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정용근 내과 의원 관절·류마티스 전문병원 통풍, 일반내과, 자가면역질환 창원시 중앙동 한서빌딩 2F 055.713.7771 원장 정용근 프란치스코



문의: 010·8525·1150

기 타

예수마음 기도 영성 수련(권민자 수녀)

일시: 1박 2일 - 7월 4일(토)~5일(주일)
 3박 4일 - 7월 9일(목)~12일(주일)/
 7월 27일(월)~30일(목)
 8월 1일(토)~4일(화)(청년)
 8박 9일 - 8월 5일(수)~13일(목)/
 9월 15일(화)~23일(수)
 40일 - 10월 6일(화)~11월 14일(토)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설명회: 7월 4일(토) 14:00
 여름진학캠프: 8월 7일(금)~9일(주일)
 대상: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2학년
 문의: 054·338·0530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수시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가톨릭지도자추천(간호, 심리, 사회복지, 경찰행정 등)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가톨릭지도자추천(간호, 심리, 사회복지, 경찰행정 등)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주일 17:00
 문의: 010·5686·1362

모집: 3,017명(수시 2,635명)

문의: 053·850·2580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ac.or.kr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주일 17:00

문의: 010·5686·1362

✦ 이흥우 신부 부친 선종

이흥우 베네딕토 신부(안식년) 부친 이태중(원선시오)님께서 6월 16일(화) 선종하여 가족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2019. 12. 1. ~ 2020. 11. 28.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7월 4일(토) 14:00	도심 속 침묵의 공간 (창원)마음의 집	010·2000·4131	침묵가운데 하느님만이 전부이고 싶은 미혼여성
성골롬반외방선교회	7월 5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010·9937·0901	대상: (만)19세~35세

명례 교회사 강좌

내용: 1년 과정, 월 1회(6월부터)
 일정: 평일반 - 3주(화) 11:00
 (인물로 보는 한국교회사 “김대건·최양업 신부의 서한으로”)
 주말반 - 3주(토) 16:00 미사 후
 (세계교회사 입문 “그리스도교 형성과 발전”)
 수강료: 10만 원(봉사자 7만 원)
 문의: 명례성지 055·391·3206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두 개의 십자가 - 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내가 중학 2학년이던 해 늦은 봄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나는 여느 때와 같이 교회엘 나갔다. 그때 강단 위에 선 목사님이 십자가에 달인 예수와 그 좌우의 강도 이야기를 했다. 임종에 이르러 회개한 대가로 〈낙원〉을 약속받는 우도右盜의 복을 선망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이와 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에게 빈정거린 좌도左盜의 완맹한 저항은 저주받은 어리석음이라고 비난했다. 이때 나는 우도보다 좌도 쪽에 마음이 쏠렸다. 실국의 한이 얼마나 뼈저리게 원통하고 사무치면 죽음을 겪는 고통 속에서도 위로받기를 단념했을까 싶었다. 로마 총독 치하의 당시 유대 사람들도 일제 총독 치하의 우리와 같이 그렇게 암담한 절망 속에 신음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여기서 그 좌도는 나의 가슴속에 새겨진 채 사라지지 않았다.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는 이렇게 작가의 어릴 적 강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된 작품이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당시 예수의 왼쪽에 있었던 죄수의 이름이 바로 '사반'이다. 「사반의 십자가」는 이 도둑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물론 소설은 역사적 사실과는 상관없이 작가가 상상으로 그려낸 이야기다. 소설 속에서 사반은 2천 년 전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의 독립운동가이며 혈맹단 단장이다. 그는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때 예수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사반도 예수를 만나보지만 예수가 자신이 추구했던 지상의 행복과 해방이 아닌 내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만다.

실망은 하였지만 사반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만은 믿는다. 그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그는 메시아를 만나면 혁명에 성공한다는 예언에 따라 로마와의 전쟁을 시작한다. 그러나 외부 세력과의 연대 문제가 얽히면서 사반은 결국 배신당해 로마군에 체포되고 만다.

예수를 배반한 유대 역시 이 소설에서 사반 휘하의 혈맹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가 예수를 로마군에 넘긴 이유는 예수가 체포되면 마침내 기적을 발휘하여 로마군을 무찌를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받아들이며 순순히 목숨을 내놓는 행보를 보여 준다. 이스라엘 해방의 정신적 지주였던 두 사람은 결국 같은 날 같은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작가는 사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사반의 십자가」가 드라마틱한 이유는 성경에서 부수적인 인물에 불과한 사반이 예수와 대립되는 사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핍박받는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같은 과제를 두고 무장투쟁을 외친 사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현실 너머의 낙원을 설파한 예수. 작가의 시선도 독자의 공감도 이 작품에서 현실적인 입장의 사반 쪽에 더 가깝게 가 있다.

어쩌면 한낱 잡범에 지나지 않을 사반을 김동리 작가는 왜 이렇게 주목했을까. 작가가 작품을 집필하던 50년대는 6·25 사변을 겪은 우리 민족의 고난이 극심하던 시기이다. 그 현실을 목격한 작가가 현실적인 구원 쪽에 더 기울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상력이 허용된다면 본질적으로 작가는 또 다른 예수를 그려낸 것이 아닐까.

예수는 그 앞에 놓여진 현실 앞에서 깊은 고뇌를 하였으리라.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비참한 상황에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혁명가의 피가 끓어오르지 않았을까. 어쩌면 김동리가 주목하는 사반은 그 고뇌하는 '인간' 예수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구원은 결국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결국은 인간으로서 고뇌를 넘어, 우리는 끝끝내 초월적인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사반의 십자가가 오늘날 예수의 십자가보다 우리 가슴에 더 오래 남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